



대전 문화동 대우·신동아 센트럴파크

“봄별을 맞이하는 설렘 그대로”

대전의 랜드마크급 센트럴파크가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센트럴파크는 대단지의 단점인 복잡하고 소음이 많을 거라는 편견 대신 쾌적함과 편리성을 자랑한다. 필자는 마치 미래의 주거 공간에 입주한 것 같다는 이들의 입담을 들어봤다.

자료제공 | 신동아건설 홍보팀





1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센트럴파크. 2 단지 앞에 조성된 소나무, 외벽의 문양과 멋지게 조화를 이룬다. 3 생태 연못 돌담길과 잘 어우러진 봄꽃의 향연.

대전 문화동 대우·신동아 센트럴파크는 대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컨소시엄을 맺고 공사를 완료한 2290세대 대단지 아파트다. 대전에서도 가장 큰 단지로 ‘도시 속의 도시(City in City)’ 개념의 주거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이곳 센트럴파크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다. 봄별을 끌어안는 설렘이 가득한 이곳, 입주자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 담겼다.

2000여 세대가 넘는 대단지인 만큼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넓고 웅장한 센트럴파크의 자태를 뽐낸다. 이곳은 봄을 지내고 여름이 되면 단지 본연의 색깔을 갖추고 입주자들의 편안한 생활 터전으로 행복한 얼굴을 내밀 것이다. 이제 막 입주를 마친 두 명의 입주자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첨단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아파트(인터뷰_정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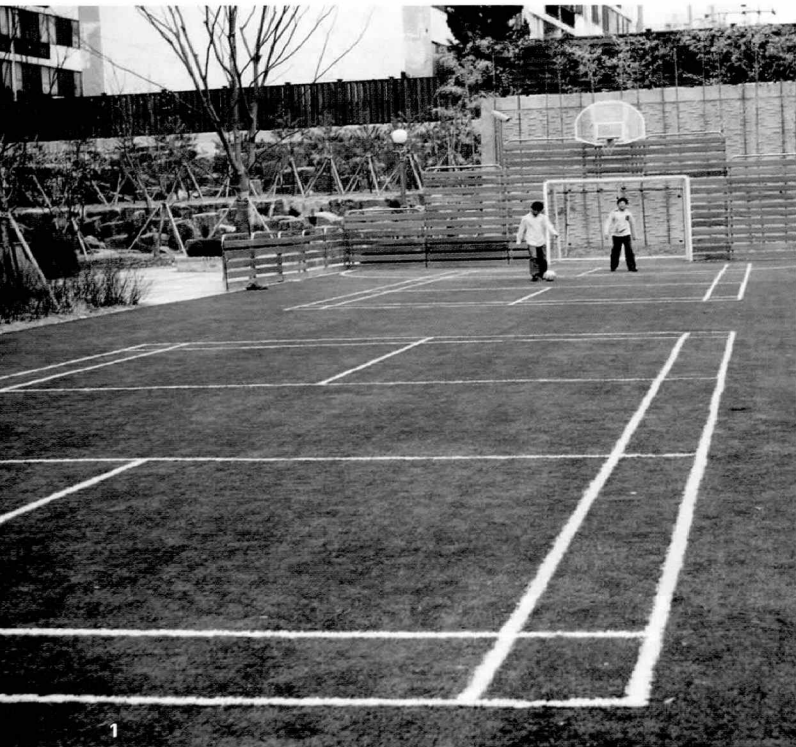
“처음엔 ‘아파트가 다 거기서 거기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다 똑같은 컨셉트에 테마 파크가 어떻고, 주변 환경이 어떻고, 주차 시설에, 단지 특화에 별반 차이점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곳 센트럴파크는 달라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 회사 두 곳이 만나 시공했다는 사실도 그렇고, 회사 아파트 브랜드가 아닌 별도의 이름을 내건 것도 신선했습니다. 마치 주상복합 단지를 연상시켰죠. 229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어디 흔합니까? 사람들은 대단지 하면 일단 소란스러울 거라고 단정지어버립니다. 하지만 여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단지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혜는 차치하더라도 3개의 단지로 알맞게 나눠진 단지 구성과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지켜주는 출입

동선은 쾌적하고 조용한 ‘파크’의 개념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단지 중앙을 중심으로 각각의 단지에 마련된 테마 파크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아파트에 와 있는지, 공원에 와 있는지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아직 입주가 끝나지 않은 터라 온전한 모습을 다 갖추진 못했지만 가히 ‘센트럴파크’라는 이름에 걸맞는 아파트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주거 단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쾌적함과 아늑함 아닌가요? 단지 바로 뒤에 대전의 명산 보문산이 자리해 아이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어놀아도 도시의 텃텃한 공기에 찌들지 않으니 주부로선 더 바랄 게 없죠.

마치 오솔길을 걷는 듯한 수로 공원은 가족들이 함께 산책을 즐기며 이웃과 담소를 나누기에 좋고, 맑고 깨끗한 생태 연못 정자는 웅장한 아파트 외관과 묘한 대비를 이루며 아이들의 놀이터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채광성도 정말 뛰어납니다. 아침 햇살이 집안 거실까지 들어와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전해지니 난방비 걱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단순히 남향 배치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향을 기본으로 채광성을 극대화시킨 첨단 내부 설계와 넉넉한 단지 배치가 더 큰 기술인 것 같아요. 입주민의 입장에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 배려해주니 저희로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대전에도 이런 아파트가 생겼다는 놀라움과 자부심에 대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첨단과 자연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건강형 아파트라 내가 아파트 하나는 꼭 부러지게 잘 골랐구나 하고 스스로 대견해합니다.”



내일의 가치로 이야기하는 오늘의 휴식처(인터뷰_임대철)

“문화동 센트럴파크를 분양받겠다고 했을 때 아내가 말렸어요. 잘 살고 있는 연립 주택을 팽개치고 굳이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조감도를 들이대고 일일이 설명해주자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단지가 정말 대전에 들어서느냐고 아내는 묻고 또 물었죠. 당시만 해도 대형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없었던 터라 아내에겐 센트럴파크가 큰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 여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입주 시기에 맞춰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나란히 들어선다 하니, 아내가 오히려 나서서 등을 떠밀더군요. 문화동 센트럴파크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된 셈입니다.

보문산 자락 바로 앞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 환경과 남향으로 위치한 주거 단지로서의 쾌적성, 대단지 테마파크형 아파트 등 내세울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또한 여기에 걸어서 10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충남대 병원이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 백화점과 할인 마트 등 쇼핑 공간과 지하철 서대전 사거리역이 단지 옆을 지나 교통, 의료 환경도 좋습니다. 실제로 입주해서 지내보니 뭐 하나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아파트구나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아내도 연신 싱글벙글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를 않더군요.

브랜드 자체가 ‘센트럴파크’ 이니 테마파크 시설은 그야말로 최고라 자부합니다. 단지 중앙에 놓인 선큰광장은 지형의 높낮이를 이용해 조

성되어 입주민의 낭만적인 심터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 보행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낮은 폭포가 흘러내리는 듯한 계단식 캐스캐이드가 조성되어 있어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감성 지수를 끌어올리는 놀이터 또한 놀이 기구 하나하나에 테마를 부여해 아이들이 뛰어놀면서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어 부모로서 매우 만족합니다.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많이 부러워합니다. 늘그막에 빛을 보는구나 우스갯소리도 건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전을 떠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의 환경은 제가 너무 잘 알죠. 대전 문화동은 대전 중에서도 최고의 생활 환경 요충지입니다. 사실 최고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도시 속의 도시, 우리 아파트의 컨셉트와 딱 들어맞는 아주 특별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생활의 ‘애깃거리’를 마련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센트럴파크는 넓고 여유 있는 단지로 넉넉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단지입니다. 미래를 설계하면서 좀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 센트럴파크에 입주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동출입구 천장은 식상하고 진부한 맛을 없애고 미려한 맛을 살렸으며, 지하 주차장엔 방화 유리 문을 설치해 안전성에도 신경 썼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과 겨울을 거쳐 한 해를 돌아보면 센트럴파크의 건강한 참모습이 진가를 발휘하겠죠. 아! 빨리 짙은 녹음이 우거진 단지 곳곳을 아이들과 누비고 싶네요.” ☺



1 단지 내 운동 시설,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도록 인조 잔디로 조성되었다. 2 어린이 놀이터는 항상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3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수로 공원. 4 봄을 더욱 재촉하는 단지 앞 봄꽃. 5 센트럴파크는 대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공동 시공한 대단지다. 6 어린이 놀이터 시설 하나에도 세심하게 배려했다.